

“보라, 내가 오늘 너를 ...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렘 1:18)의 번역 문제 -예레미야 15장을 참조하여-

김상기*

예레미야 1:18에는 일곱 개의 **ל**-전치사 어구들이 **ל**-전치사 어구를 중심으로 두 그룹으로 나뉘어 나온다. 이에 대해 역본들이나 연구서들은 대체로 유사한 이해를 보인다. **ל**-전치사 어구 앞의 세 개는 예레미야를 가리키는 **לְיִרְמְיָהוּ**의 이인칭 접미사 **י**를 설명하는 일종의 술어로 간주되고 그 뒤의 네 개는 **ל** 행위의 의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이 일치된 입장이지만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용납될 수 없는 일은 아니리라. 18상반절이 기본적으로 야훼가 예레미야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는 야훼가 예레미야를 어떤 공격에도 스스로 견딜 수 있는 강한 자로 세웠음을 말한다.¹⁾ 그러나 이와 달리 19절에 언급된 야훼의 동행과 도움 그리고 구원 약속은 예레미야가 적들에게 스스로 저항할 능

* 전주대학교 강사, 구약학.

1) J. A. Thompson, *The Book of Jeremiah*,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80), 157; W. McKane and J. A. Emerton, C. E. B. Cranfield,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Jeremiah*, vol. 1 (Edinburgh: T & T Clark and New York, 1986), 22-23; S. Herrmann, *Jeremia*, BK 12: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1), 81-83; P. Craigie, P. H. Kelly and J. F. Drinkard, Jr., *Jeremiah 1-2*, WBC 26 (Dallas: Word Books Publisher, 1991), 『예레미야 1-25』, 권태영 옮김 (서울: 솔로몬 출판사, 2003), 93; G. Fischer, *Jeremia 1-25*, HThKAT (Freiburg u.a.: Herder, 2005), 131, 141-142; J. C. Lundbom, *Jeremiah 1-20.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NY et al.: Doubleday, 1999), 237 이하; W. L. Holladay, *Jeremiah I. A Commentary on the Book of the Prophet Jeremiah Chapters 1-25*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6), 23, 43이하; J. Schreiner, *Jeremia 1-25, 14* (Würzburg: Echter Verlag, 1981; 1985), 17; W. H. Schmidt, *Das Buch Jeremia 1-20*, ATD 20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8), 64; S. Hermann, *Jeremia*, BK XII 1-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0), 79 이하; R. P. Carroll, *Jeremiah. A Commentary* (London: SCM Press, 1986), 108 이하; 박동현, 『예레미야 1』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100-101 등 참조. W. Brueggemann, *A Commentary on Jeremiah. Exile and Homecoming* (Grand Rapids: Eerdmans Pub. Com, 1998), 30은 예외적으로 야훼의 연대 약속만 강조하고 이 비유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력이 없는 약한 자임을 전제한다. 이렇게 한 단락 안에 상충되는 표상들이 공존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러한 불일치가 본래적인 것이 아니라 두 그룹의 5-전치사 어구들을 서로 다르게 해석한 때문이라면, 그러한 해석의 정당성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물론 동일한 전치사들이 한 문장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 동일한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르게 해석해서 모순이 발생한다면, 그 해석은 재고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필자가 아는 범위 안에서 이제까지 없었다. 그 비유를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는 그토록 긴 해석 전통에 반하여 그것을 달리 해석함으로써 본문을 모순 없이 읽을 가능성을 찾는 것이 이 글의 과제다.

이를 위해 먼저 예레미야 1:18의 다른 번역 가능성을 찾고, 그 다음에 견고한 성읍의 용례들을 조사함으로써 그러한 번역의 가능성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이어서 상호의존 관계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예레미야 15:20의 문맥을 살펴봄으로써 그 번역의 정당성을 논하고, 끝으로 예레미야 1:14-19의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그렇게 번역되어야 함을 말하고자 한다.

1. 18절

18절 첫머리의 וְיָבִי 는 그 이전의 진술과 대비되는 진술을 도입하는 형식이지만, 여기서는 그것이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17절이 וְיָבִי -절에 의해 닫혀져 있어서 17절과 18절 사이에는 약간의 단절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וְיָבִי -절에 표명된 야훼의 ‘위험’은 18하반절의 동행과 구원 약속과 상충된다는 점도 그와 같은 인상을 강화시킨다. 따라서 17절과 18절이 어떻게 관계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지만, 이에 대한 답은 14-19절이 이해된 다음에야 비로소 말할 수 있을 것이다(아래 참조).

18절은 ‘ וְיָבִי +목적어+시간 부사구+ וְיָבִי (3회)+ וְיָבִי -x+ וְיָבִי -x(3회)’의 구조로 되어 있다. 앞의 세 וְיָבִי 는 וְיָבִי 와 그 영향 아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나머지 וְיָבִי 들과 다르게 이해된다.²⁾ 그리고 이러한 이해 배후에는 칠십인역과 불가타역이 자리

2) Joü.-M. §125 l과 133 d는 וְיָבִי 앞의 וְיָבִי 가 동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וְיָבִי 뒤의 וְיָבִי 의 의미를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 점에서 그의 이해는 LXX의 문장 이해와 동일하다. E. Jenni, *Die Hebräischen Präpositionen, Bd. 3. Die Präposition Lamed* (Stuttgart [u.a.]: Kohlhammer, 2000), 43 Rubrik 146; 98 Rubrik 352와 B. W. Waltke and M.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Eisenbrauns, 1990), 211 각주 91도 참조.

잡고 있다.

칠십인역에는 MT의 $\text{בְּרִיחַ וְלִעְמוּד}$ 과 $\text{לְכַהֲנֵיהֶּ$ 그리고 $\text{עַל-כָּל-הָאֲרָזִים}$ 에 해당되는 말들이 없고, 복수형 $\text{נְחֹשֶׁת נְחִמּוֹת}$ 는 단수로 옮겨지고³⁾ 그 뒤에는 MT에는 없는 $\delta\chi\rho\acute{\alpha}\nu$ 이 덧붙여져 있다. 또한 $\tau\omicron\iota\varsigma \beta\alpha\sigma\iota\lambda\epsilon\upsilon\sigma\iota\nu \text{Iou}\delta\alpha$ 앞에는 ‘모든’을 뜻하는 형용사 $\acute{\alpha}\pi\alpha\sigma\iota\nu$ 이 덧붙여져 있다. $\acute{\alpha}\pi\alpha\sigma\iota\nu \tau\omicron\iota\varsigma \beta\alpha\sigma\iota\lambda\epsilon\upsilon\sigma\iota\nu \text{Iou}\delta\alpha$ (“모든 유다 왕들에게 맞서”)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면 그것은 유다 말기에 활동하며 요시야 이후의 왕들과 대립하였던 예레미야의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다의 왕들에게” 앞에만 붙어 있는 이 어색한 $\acute{\alpha}\pi\alpha\sigma\iota\nu$ 이 $\text{עַל-כָּל-הָאֲרָזִים}$ 의 כָּל 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⁴⁾

또한 $\acute{\omega}\varsigma \tau\epsilon\iota\chi\omicron\varsigma \chi\alpha\lambda\kappa\omicron\upsilon\nu$ (“놋성벽”) 다음의 $\delta\chi\rho\acute{\alpha}\nu$ 은 $\tau\epsilon\iota\chi\omicron\varsigma$ 를 수식하는 또 하나의 형용사로서가 아니라⁵⁾ 목적어 $\sigma\epsilon$ 의 술어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acute{\omega}\varsigma$ 는 as(...로, ...로서)보다는 like(...처럼)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⁶⁾ “보라 나는 오늘 너를 ...처럼 강한 자로 세워 ...에게 **맞서게 하였다.**”⁷⁾ 그렇다면 $\delta\chi\rho\acute{\alpha}\nu$ 은 칠십인역이 공간적 표현인 $\text{עַל-כָּל-הָאֲרָזִים}$ 를 비유적으로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delta\chi\rho\acute{\alpha}\nu$ 과 $\acute{\alpha}\pi\alpha\sigma\iota\nu$ 이해는 이 구절의 짧은 칠십인역 번역 대본이 긴 MT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하게 한다.⁸⁾ 그렇다면 칠십인역에 없는

3) 명사와 수식어의 수 불일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Ges.-K. §132 g c) 참조. 또한 H. -W. Jüngling, “Ich mache dich zu einer ehernen Mauer. Literarkritische Überlegungen zum Verhältnis von Jer 1,18-19 zu Jer 15,20-21”, *Bibl* 54 (1973), 1-24, 특히 5쪽 참조.

4) H. -W. Jüngling, “Ich mache dich zu einer ehernen Mauer.” 5쪽 참조.

5) *Ibid.*, 3쪽은 이와 달리 $\delta\chi\rho\acute{\alpha}\nu$ 을 $\tau\epsilon\iota\chi\omicron\varsigma$ 와 연관짓는다. 이 경우는 “보라 나는 오늘 너를 강한 ...으로 세워 ...에게 **맞서게 하였다**”가 될 것이다. Y. -J. Min, *The Minuses and Pluses of the LXX Translation of Jeremiah as Compared with Masoretic Text: Their Classification and Possible Origins* (Hebrew Univ. of Jerusalem, 1977)(박사학위 논문), 135는 $\delta\chi\rho\acute{\alpha}\nu$ 을 MT와 비교하여 LXX에 더해진 것들(pluses) 가운데 하나로 간주한다. 그러나 그는 하나하나에 대해 평가를 하기보다 그것들을 “일괄적”(collectively)으로 처리하고 경향을 찾아내고자 한다(181).

6) 대표본: “...我必使爾屹立 若鞏固之城 鐵株銅垣”(… 나는 견고한 성과 철기둥과 놋성벽처럼 너를 우뚝세우리라)와 웨레셰브스키역: “我今日使爾在通國 在猶大王公祭司庶民前 若鞏固之城 若鐵柱銅垣”(나는 오늘 너를 온 나라와 유대 왕과 고관 제사장과 대중 앞에 견고한 성처럼 철기둥과 놋성벽처럼 세웠다) 참조.

7) 양자는 의미보다는 표현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인다.

8) 쿵란에서 MT와 가까운 4QJer^{a,c}, 2QJer외에 칠십인역에 가까운 4QJer^{b,d}가 함께 발견된 것은 칠십인역처럼 짧은 히브리어 본문과 MT처럼 긴 히브리어 본문이 하스몬 왕조 시대에 공존했음을 보여준다. 그 사본들에 대해서는 F. G. Martinez & E. J. C. Tigchelaar, (eds.), *The Dead Sea Scrolls*, vol. 1 (Leiden et al.: Brill 1997), 212, 270-272 참조.

MT의 בְּרִיָּה וְלֹא עֲמֹדָה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는지?

그 표현들이 칠십인역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칠십인역의 본문은 더 매끄럽고 더 일관된 것처럼 보인다.⁹⁾ 성읍과 성벽은 함께 전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철 기둥에 대한 진술을 따로 필요로 하지 않고, 제사장들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왕과 고관 및 ‘땅의 백성’들이 갖는 정치적 성격을 더 분명하게 드러낸다. MT에만 있는 것들은 그러한 본문 상태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다. 따라서 본문이 변경되었다면 칠십인역이 히브리어 대본의 본문을 변경했을 가능성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더 클 것이다.¹⁰⁾ 그러나 여기에는 히브리어 대본을 직역하는 칠십인역의 일반적인 경향과 어긋난다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칠십인역도 본문에 첨가하는 일이 없지 않기 때문에¹¹⁾ 칠십인역에 의한 축소 변경 가능성도 역시 부정될 수 없다.¹²⁾

한편 불가타역은 칠십인역과 조금 다른 본문 이해를 보여준다.

렘 1:18 ego quippe dedi te hodie in civitatem munitam et in columnam ferream et in murum aereum super omnem terram regibus Iuda principibus eius et sacerdotibus et populo terrae

על 앞의 세 ㄹ은 모두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되고 그 뒤의 네 ㄹ은 칠

9) H. -W. Jüngling, “Ich mache dich zu einer ehernen Mauer,” 4쪽 각주 3은 이를 문헌비평적 관점에서 다루지만, 이 어구들의 유무는 문헌비평적 사유가 아니라 본문비평적 사유의 대상이다.

10) Y. -J. Min, *The Minuses and Pluses of the LXX Translation of Jeremiah*, 309-310은 칠십인역 역자가 히브리어 대본에서 어떤 표현들을 임의로 삭제했을 가능성을 부정한다.

11) Ibid., 182, 314 참조,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예레미야 1장의 쿨란 사본은 발견되지 않았다.

12) A. R. P. Diamond, “Jeremiah’s Confessions in the LXX and MT: A Witness to Developing Canonical Function?”, *VT* 60 (1990), 33-50은 시적인 고백록의 경우 E. Tov, “Some aspects of the Textual and Literary History of the Book of Jeremiah”, P. -M. Bogaert, (ed.), *Le livre de Jérémie. Le prophète et son milieu. Les oracles et leur transmission*, BRThL 54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1981), 146-167과 동일지자, “The Literary History of the Book of Jeremiah in Light of its Textual History”, *The Greek and Hebrew Bible. Collected Essays on the Septuagint* (Leiden et al.: Brill, 1999), 363-384의 두 편집본설을 수용변형하면서 칠십인역과 MT의 대본이 동일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제의적 집단적 경향의 칠십인역은 그에 맞지 않는 것을 삭제하고, 개인적 탄식시적 경향의 MT는 그 경향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칠십인역의 히브리 성서 대본이 더 짧고 더 우월하다고 보는 입장에 대해서는 S. Soderlund, *The Greek Text of Jeremiah. A Revised Hypothesis*, JSOTSup 47 (Sheffield: Sheffield Press, 1985) 참조하고 적어도 MT의 일부는 칠십인역을 전제하고 그것이 던진 물음에 답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두 편집본설을 뒷받침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B. Gosse, “The Masoretic Redaction of Jeremiah: An Explanation”, *JSOT* 77 (1998), 75-80 참조.

십인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두 여격(dative)으로 옮겨지고 있다. 이로써 예레미야는 요새화된 성읍과 철기둥 및 놋성벽과 동일시된다. 알-전치사 어구도 ㄴ-전치사 어구들과 마찬가지로 동사와 연관되고 있다. “...너를...이 되게 하여 온 땅 위에 세우고 ...에 **맞게 하였다**.” 칠십인역과 불가타역의 이러한 본문 이해는 한글 역본들을 포함해서 현대의 역본들에서도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있다.

현대불어성서(BFC)는 칠십인역과 같고,¹³⁾ 영어 새예루살렘성서(NJB)와 독일어 개정루터역 성서(LUT)는 불가타역과 같다.¹⁴⁾ 표준새번역과 그 밖의 다수 영어 역본들은 불가타역에 가깝지만 ㄴ 앞의 세 ㄴ을 모두 목적격 표시로 간주한다는 점이 다르다.¹⁵⁾ 이처럼 모든 역본들이 이해와 표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비유적이든 직접적이든 ㄴ 앞의 세 ㄴ-전치사 어구들을 모두 예레미야와 연관시킨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반면에 ㄴ-전치사 어구에 대한 이해는 현대의 모든 역본들이 땅에 대한 언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방식은 칠십인역에 더 가깝다. 그 뒤의 ㄴ-전치사 어구들이 그것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MT의 18절은 비록 산문이지만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וַאֲנִי הִנֵּה נִתְמַדְד הַיּוֹם לְעִיר מִבְּצָר וּלְעַמּוּד בְּרִזָּל וּלְחֻמּוֹת נְחֹשֶׁת עַל-כָּל הָאָרֶץ
לְמַלְכֵי יְהוּדָה לְשָׂרֶיהָ לְכַהֲנֶיהָ וּלְעַם הָאָרֶץ:

특히 상반절과 하반절이 모두 ㄴ-전치사로 끝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비록 전치사의 차이 때문에 형식적 평행에 머문다 해도 평행구조가 그 때문에 한층 더 뚜렷해지는 것은 분명하다. 생략된 부분은 평행구절들의 동등성을 시사한

13) 공동번역(개정판)이 여기에 속한다.

렘 1:18 유다의 임금이나 고관들, 사제들이나 지방 유지들과 함께 **은 나라가 달려들어**도 내가 오늘 너를 단단히 방비된 성처럼, 쇠기둥, 놋담처럼 세우리니,

14) 개역(개정)과 불어 예루살렘성서 (FBJ)와 영어 새미국표준성서(NAS)도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렘 1:18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15) 표준새번역이 여기에 속한다.

렘 1:18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를, 튼튼하게 방비된 성읍과 쇠기둥과 **놋성벽으로** 만들어 **선**,

이 나라의 모든 사람, 곧 유다의 왕들과 관리들에게 맞서고, 제사장들에게 맞서고, 땅의 백성에게 **맞서도록** 하겠다.

또한 미국표준성서(ASV), 유대출판공회역(JPS), 유대출판공회역 타나카(TNK), 새개역표준성서(NRSV), 흙정역(KJV), 불어공동번역성서(TOB) 등이 여기에 속한다.

다. 그렇다면 **לַ**-전치사 어구 앞의 **ל**와 그 뒤의 **ל**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따라서 앞의 **ל**도 여격(dative)으로 읽고자 한다. 이것은 앞의 비유적 표현들이 예레미야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뒤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자들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임을 의미한다.

‘나는’¹⁶⁾ 오늘 너를 요새화된 성읍과 철기둥과 놋성벽에 맞서 온 땅 위에 세운다.

유다 왕과 그 고관들, 그 제사장들과 땅의 백성들에게 맞서.

이를 다시 우리 말 어순에 따라 바꿔 말한다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 ‘나는’ 오늘 너를 요새화된 성읍과 철기둥과 놋성벽,
곧 유다 왕과 그 고관들, 그 제사장들과 땅의 백성들에게 맞서
온 땅 위에 세운다.

여기서 ‘온 땅 위에’는 예레미야가 홀로 저 강하고 고집센 유다의 지배 세력들 모두와 맞서야 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¹⁷⁾

이러한 번역이 정당한가를 먼저 비유적 표현들의 용례들을 따라 따져보고, 그 다음에 다시 이 구절을 14-19절의 맥락에서 살펴봄으로써 그 정당성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2. 비유 이해

쇠기둥은 여기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며¹⁸⁾ 놋성벽은 이 구절과 의존관

16) 아래 13-14쪽 참조.

17) 불가타역이 이러한 이해에 가까울 것이다.

18) G. Fischer, “Ich mach dich ... zur eisernen Säule” (Jer 1:18), *ZKTh* 116 (1994), 447-450은 예레미야를 더 견고하고 더 좋은 성전 대체물로 간주한다. 이를 위해 그는 렘 52:21-23이 왕하 25:17보다 자세하게 보도하는 불탄 성전의 ‘남은’ 두 놋기둥을 성전의 상징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렘 28:10.13에서 나무 명에 쇠 명으로 바뀌는 것과 관련하여 렘 1:18은 52장의 놋기둥을 쇠기둥으로 대체한다고 주장한다. 예레미야가 바로 그 놋기둥이므로 그는 성전을 대체하며 더 나아가 파괴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결론을 그로부터 이끌어낸다. 그러나 렘 52:17(=왕하 25:13)은 놋기둥이 그러한 상징이 될 수 있을 만큼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해체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성전 현관 앞에 세워진 두 놋기둥의 이름 야긴과 보아스는 각각 “그(=야훼)가 세우시리라”와 (נִצְּנִים)를 נִצְּנִים로 읽으면) “그에게 힘이 있다”를 뜻하므로(왕상 7:21), 그것들의 해체를 따로 보도하는 까닭은 그것이 야훼의 성전 포기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상징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야훼의 소유와 보호 능력을 그것들이 상징한다면, 그

계에 있는 렘 15:20에 한 번 더 나온다. 따라서 이 비유적 표현들에 대한 이해는 일차적으로 ‘요새화된 성읍’ 이해에 달려 있다.

‘요새화된 성읍(들)’은 여호수아 19:29; 열왕기하 3:19; 17:9; 18:8; 시편 108:11[H 108:10]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두로 같은 실제 성읍들을 가리킨다. 그 가운데 열왕기하 3:19는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라도 야훼 앞에는 아무 것도 아님을 말한다. 또한 מִבְּצָר은 홀로 사용되어 요새(화된 성읍)를 의미하기도 한다.¹⁹⁾ 사실적으로 사용된 מִבְּצָר נֶאֱמַר אוֹר מִבְּצָר은 문제의 비유를 이해하는 데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 그러나 렘 6:27은 예외다. 본문을 고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읽는다면²⁰⁾ עָמִי מִבְּצָר은 넓은 의미의 동격(Apposition)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²¹⁾

בְּחֹן נִתְתִּירָהּ בְּעַמִּי מִבְּצָר וְחָרַע וּבְחַנְתָּ אֶת־דְּרָכֶם

나는 너를 요새화된/요새 같은 내 백성 가운데 검사관으로 너를 보냈다/세웠다.

(이는) 네가 그들의 길을 알고 검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읽는 것이 허용된다면 그 본문의 의미는 작지 않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예레미야의 관계가 요새와 망대의 관계임을 말하는 한편 이스라엘이 מִבְּצָר로 비유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28절은 그렇게 묘사된 이스라엘이 반역과 비방을 일삼는 자들이라고 규정하며 이스라엘을 다시 놋과 철에 비유한다. 6:27-28은 1:18이 수식어로 사용한 요새와 철과 놋을 독립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그것과 다르다. 그러나 그 말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성격을 규정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것은 재료와 관련된 것일 수 없다. 이것은 나무 멩에를 쇠멍에로 바꾸는 것을 토대로 이 표현을 이해하는 시도가 정당화되기 어려움을 뜻한다. 따라서 예레미야를 성전의 대체물로 보는 해석은 근거가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19) 민 32:36; 수 19:35; 삼상 6:18; 삼하 24:7; 왕하 10:2; 사 17:3; 렘 6:27; 34:7; 암 5:9; 합 1:10. 그 가운데 암 5:9는 왕하 3:19와 같은 내용을 다룬다(합 1:10도 참조). 렘 6:27에 대해서는 위 참조.

20) HALOT 148 IV בצר pi pt (금 분석자)로 고쳐서 בחון과 평행 또는 주해로 읽을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이것은 비유의 가능성을 보지 못한 때문일 것이다.

21)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Ges.-K. § 131 p-r 참조. 특히 מִבְּצָרָה (겔 16:27), מְעוֹן הָיִל (삼하 22:33. 이와 구문이 시 18:33에서 다른 הָיִל은 부사적 목적격으로 나온다), מִבְּצָרָה (겔 24:13),

הַבְּלָתוֹ חוֹב (겔 18:7)도 참조. 칠십인역은 מִבְּצָר을 수식어로 바꿔 옮기고 있다: ἐν λαοῖς δεδοκιμασμένοις.

한다. 1:18은 과연 이와 상반된 방식으로 그 말들을 사용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일까?

‘요새화된 성읍’이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의미는 간접적이지만 **מִבְּצָר**와 한 어휘장(Wortfeld)을 구성하는 **בְּצָר**의 수동태 분사형 **בְּצוּר**에 기대어 추적해볼 수 있다.²²⁾ 이것은 예레미야 1:18과 의존관계에 있는 15:20의 **נִחַשְׁתָּ בְּצוּרָה לְחַיִּימוֹת** 때문에 허용될 것이다(이 구절에 대해서는 아래 참조). 호세아 8:14는 유다가 ‘견고한 성읍들’(עָרִים בְּצוּרוֹת)을 건축한 것을 가리켜 야훼를 잊은 행태라고 고발한다. ‘견고한 성벽’(חֹמֶה בְּצוּרָה)은 신명기 28:52에서 사람들이 의지하는 안전장치를 나타내고, 이사야 2:15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말들과 함께 인간의 교만을 상징한다(사 2:12-17 참조). 특히 에스겔 21:20[MT 21:25]에서는 바벨론의 침공 앞에 서있는 예루살렘이 그 말로 표현된다(겔 21:18-27[MT 21:23-32] 참조)²³⁾. 반면에 이사야 26:1은 그 말을 야훼에 대해 사용하며 그의 구원을 나타낸다. 이처럼 그 말은 비유적으로 사용될 때 사람과 하나님에 대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고, 따라서 개인에게 이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²⁴⁾ 그리고 그 말이 사용되는 중요한 문맥은 심판임을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이다(사 27:10; 겔 36:35; 습 1:16도 참조).²⁵⁾

이러한 어휘 사용례들은 예레미야 1:18의 이해에 직접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러한 말들이 예레미야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해석전통에 물음표를 던지도록 만들기에는 충분하다. 이는 예레미야 15:20에서 확인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의미와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 이 구절을 그것이 놓인 문맥 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3. 예레미야 15:20

이 구절을 포함하는 예레미야 15:19-21은 10-18절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두

22) **בְּצָר** III nif: 접근하기 어렵다, 불가능하다 (창 11:6; 욥 42:2). pi: 접근할 수 없게 만들다(사 22:10; 렘 51:53).

23) 시 31:21 [MT 31:22]의 **מְצוּר בְּעֵיר**도 참조.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그 말은 야훼가 구원을 베푸는 장소로 언급된다.

24) 잠 25:28은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을 무너져 성벽이 없는 성읍에 비유한다(렘 20:16도 비교).

25) 미 5:11 **וְהָרְסוּ עָרֵי אֶרֶץ וְהָרְסוּ קְלַמְבֻצָּרָיִךְ**과 습 9:3 **זָר מְצוּר לָהּ**도 참조.

가지 탄식에 대한 야훼의 두 가지 답변이다.²⁶⁾

예레미야 15:10-21의 사역과 구조

10 나의 어머니여,
당신이 나를 온 세계와 맞서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로 낳았으니
(그것은) 내게 저주입니다,
나는 꾸어주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내게 꾸지도 않았는데²⁷⁾ 모두
나를 저주합니다

11²⁸⁾ 그렇습니다,²⁹⁾ 야훼여, 참으로 나는 선을 위해 당신을 섬겼고³⁰⁾

26) P. Craigie, 『예레미야 1-25』, 382는 11-14절을 10절의 탄식에 대한 응답으로 간주한다. 이것은 본문을 다르게 재구성하기 때문이다.

27) 채권자와 채무자 비유는 예레미야가 세상과 다투는 모습을 채무자를 뒤흔치고 채무자의 원성을 낳는 채권자에 빚내고 있다.

28) 현재 형태의 11절 MT 본문은 다음과 같이 옮겨진다.

야훼가 말씀하셨다

나는 참으로 선을 위해 너를 ‘놓아주었고’/강하게 하였고

재난의 때나 환난의 때에 적이 너에게 **간구하게** 했다.

칠십인역은 야훼를 호칭(δέσποτα)으로 읽는다는 점에서 위의 번역과 동일한 흐름을 보인다. 한글성서들 가운데 공동번역이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 הִנְנִי(hi)를 ‘간구하게 하다’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아래 각주 29 참조.

29) 11절은 현재 10절의 예레미야의 탄식에 대한 야훼의 답변으로 되어 있다(맹세 형식을 빈 야훼의 확인에 대해서는 Ges.-K., § 149b 참조). 그것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15절을 포함하는 문맥에서는 본문 변경의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이 구절 첫머리의 הִנְנִי הָאֱלֹהִים가 전제하는 목적어는 그 앞에 있어야 하고 또 그 다음 간구의 타당성을 제시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그런데 12-14절이 이를 할 수 없는 것은, 이야기 논리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목적어의 내용이 그 다음 간구를 정당화할 수 있는 예레미야의 행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10절에서 15절로 바로 이어질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유 때문이다. 또한 바로 그 이유들 때문에 탄식과 간구 사이의 11절은 본래의 것이 아니고 본문 변경 때문에 본래의 기능을 잃은 것으로 판단된다. MT와 역본들이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아래 각주 27 참조). 11절 첫머리의 הִנְנִי הָאֱלֹהִים를 הִנְנִי אֱלֹהִים으로 고쳐 읽는다(칠십인역의 γένειτο δέσποτα 비교). 이로써 그 이하 문장의 주어는 야훼에서 예레미야로 바뀌고, 15절은 바로 이러한 11절에 무리 없이 이어진다. 11절의 본문 변경은 12-14절의 이차적 삽입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J. Kiss, “Die dritte Konfession Jeremias (Jer 15:10-21)”, H. Klein, B. W. Köber und E. Schlarb, (Hgg.), *Kirche-Geschichte-Glaube. Freundesgabe für Hermann Pitters zum 65. Geburtstag* (Erlangen: Martin-Luther-Verl. 1998), 42-53, 42.44 참조.

15절을 14절에 이어 읽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F. D. Hubmann, *Untersuchungen zu der Konfessionen Jer 11,18-12,6 und Jer 15:10-21*, FzB 30 (Würzburg: Echter Verlag, 1978), 273-274 참조. 그는 다가올 심판을 야훼가 분명 가장 잘 알고 있음을 예레미야가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 심판이 야훼에 의한 것이 아닐 때 할 수 있는 말일 것이다. 하지만 렘 1:11-19는 이미 그 심판을 야훼가 불러들이는 것으로 선언한다.

30) 소마소라(Mp)는 הָאֱלֹהִים(Kt: Bibleworks의 모음 표기는 BHS와 다르다)를 הָאֱלֹהִים(Qr)로 고쳐

참으로 재난의 때나 환난의 때에 적을 위해 당신에게 간절히 간구했습니다.³¹⁾

12 그가 철이라 한들 북방의 철과 놋을 꺾을 수 있으랴?³²⁾

13 나는 네 재산과 네 보물을 약탈당하게 내주리라³³⁾
값 때문이 아니라 네 모든 죄 때문에 네 모든 국경 안에서 (그리하리라)

14 내가 (너를) 네 적과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게 하리라.
참으로 내 코에서 불이 타올라 너희 위에 붙게 될 것이다.³⁴⁾

15 야훼여 당신께서 아시오니³⁵⁾

나를 기억하시고 돌아보소서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보복하소서

오래 참으시다가 (결국) 나를 데려가지 마소서³⁶⁾

당신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 당하고 있음을 아소서

16 (내가) 당신의 말씀을 만나 먹으니

읽는다. 이와 달리 타르쿰(Tg)과 불가타(Vulg)는 그것을 קָרַחְתִּי 로 고쳐 읽는다. Kt는 ‘견고하다’는 뜻의 아랍어 קָרַח 에서 유래된 것으로 간주되거나 Qr의 어근 קָרַח 의 변형으로 설명된다. 여기서는 BHS의 제안을 따라 קָרַחְתִּי 로 읽고자 한다. HALOT, 1652-1653도 그 입장을 지지한다. H. -J. Hermission, “Jeremias dritte Konfession”, ZThK 96 (1999), 1-28, 3도 참조.

31) 사 53:6b의 $\text{לֹא יִשְׂרָף עוֹן אָבִים בּוֹ אֵת הַחַטָּאת הַזֹּאת}$ 은 이와 동일한 구문이지만 목적어가 ‘사물’이라는 점이 다르다. 이에 대해 HALOT, 910은 “to let something hurt someone”이라는 풀이를 하는 반면에 목적어가 사람인 렘 15:11에 대해서는 “to intercede with you(אָתָּךְ) for (בְּ) the enemy”라는 해석을 제시한다. 후자는 적을 위한 intercede 행위를 야훼의 행위로 보기 어렵게 만든다. 야훼가 적을 위해 예레미야에게 좋게 말해 준다/중보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서 $\text{בְּ} \text{חֵן} \text{עַל} \text{לְ} \text{חֵן}$ (hi)는 기본형(qal)과 동일하게 “plead with someone on behalf of someone”의 의미로 쓰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G. Fischer, *Jeremia 1-25*, 503은 ‘(우연히) 마주치다, 만나다’는 기본형(qal)의 의미를 출발점으로 하여 단지 야훼가 예레미야의 적들로 하여금 그를 만나게 하였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것은 그 만남이 적대적인 것인지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게 만든다. J. Kiss, “Die dritte Konfession Jeremias”, 42도 동일한 번역을 제시한다.

32) 현재 형태의 본문에서 앞의 לֹא יִשְׂרָף 은 주어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주어와 동격으로 이해하고 양보의 의미로 파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33) 야훼가 직접 적에게 이인칭 단수와 복수 이인칭으로 말을 건네는 13-14절은 문맥에서 동떨어져 있다. 이것은 렘 17:3-4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서는 H. -J. Hermission, “Jeremias dritte Konfession”, 4 참조.

34) 야훼의 분노와 심판에 대한 비유적 언급이다. 그 점에서 심판을 견딜 수 없음을 수사학적 질문으로 표현하는 12절과 짝을 이룬다.

35) 위의 각주 29 참조. A. R. Diamond, *The Confessions of Jeremiah in Context. Scenes of Prophetic Drama*, JSOTsupp. 45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7), 72는 이 어구를 편집구로 간주한다. 그러나 그러한 어법의 가능성은 수 22:23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36) 죽음의 의미로 사용된 ‘데려 가다’에 대해서는 시 102:24 참조.

- 당신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 되고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내 위에 불립니다, 만군의 하나님 야훼여!³⁷⁾
- 17 나는 조롱하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앉아 즐거워하지 않았고
당신 손 앞에 홀로 앉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분노로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 18 어찌하여 내 고통이 계속되고 내 상처는 낫지 않고 치료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당신은 내게 정말 속이는 시내, 믿을 수 없는 물 같으
럽니까?³⁸⁾
- 19 그래서³⁹⁾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만일 돌이키면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고 너는 내 앞에 서리
라.
내가 만일 귀한 것을 말하고 헛된 것에서 떠나면 ⁴⁰⁾ 내가 내 입
같이 되리라.⁴¹⁾
- 그들이 네게 돌아오리라.⁴²⁾ 그러나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라.
- 20 내가 오늘 너를 이 백성 곧 견고한 놋성벽에 맞서 세운다.⁴³⁾
그들이 네게 싸움 걸지라도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37) 같은 형식의 표현으로 “그 위에서 내 이름이 불리는 집”(렘 7:10, 11, 14, 30; 32:34; 34:15; 왕상 8:43)이 있다. 그 밖에 이스라엘(렘 14:9; 신 28:10; 사 63:10; 대하 7:14)과 예루살렘(렘 25:29)도 동일한 방식으로 표기된다. 그러나 그러한 예들과 본문의 차이는 본문이 ‘나’를 설명하며 ‘그 위에서 야훼의 이름이 불리는 나’로 말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따라서 예레미야의 말은 그가 야훼에게 속해 있다는 자의식의 표현이라기보다(박동현, 『예레미야 I』, 329, 535 참조) 사람들이 그와 관련하여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야훼의 이름을 부른다는 사실에만 초점을 맞춘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시 22:6-8; 42:10에서처럼 적들이 야훼와 그의 관계를 빌어 조롱하거나 렘 17:15의 경우처럼 심판예언의 지연에 대해 빈정거리는 뉘앙스를 내포할 수도 있다(또한 시 71:11도 참조). 적어도 그러한 가능성은 배제되지 않는다.

38) 야훼가 속였다는 탄식에 대해서는 렘 4:10 참조.

39) ¹⁷은 일반적으로 결론을 이끌기 때문에 그것으로 시작되는 사자공식구는 19a절의 도입부로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 아마도 야훼가 18b절의 불평 때문에 19절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 그 말을 사용한 것 같다.

40) 전치사 ¹⁷은 여기서 분리(from ~ away)의 의미를 갖는다.

41) 18절의 ‘속이는 시내 같다’와 비교.

42) 그들은 야훼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므로 그들의 돌아옴은 회개의 의미로 이해되지 않는다. 이것은 19b-20aa절과 19aa절의 행위 비교에서도 확인된다(아래 참조).

43) 칠십인역과 불가타역은 렘 1:18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본문을 각각 번역한다. 그러나 칠십인역의 경우 1:18의 $\acute{\omega}\varsigma\ \tau\acute{\epsilon}\iota\chi\omicron\varsigma\ \chi\alpha\lambda\kappa\omicron\upsilon\omicron\nu\ \acute{\omicron}\chi\upsilon\rho\omicron\nu$ 과 달리 여기서는 $\acute{\omega}\varsigma\ \tau\acute{\epsilon}\iota\chi\omicron\varsigma\ \acute{\omicron}\chi\upsilon\rho\omicron\nu\ \chi\alpha\lambda\kappa\omicron\upsilon\omicron\nu$ 로 되어 있다. 이러한 어순의 차이 때문에 여기서는 $\acute{\omicron}\chi\upsilon\rho\omicron\nu$ 를 1:18에서처럼 분리시켜 따로 읽을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를 돕고 너를 건질 것이기 때문이다.

야훼의 말씀이다

21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고 폭력자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리라

이 본문은 AA'B'B의 구조를 보인다.⁴⁴⁾

I) A: 10-11.15aα절(탄식과 간구)⁴⁵⁾ < B: 19b-21절(응답)

II) A': 15aβb-18절(간구와 탄식) < B': 19a절(응답)

그리고 AA'는 또다시 일종의 교차법적으로 짜여져 있다.

A: (싸움꾼 운명에 대한) 탄식 / (자신의 정당한) 행위 / (박해로 인한) 간구

A': (죽음의 위기와 수치로 인한) 간구 / (자신의 정당한) 행위 / (야훼의 무관심에 대한) 탄식

여기서 예레미야가 당하는 수치와 죽음의 위기는 넓게 보아 박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AA'는 연속적이다. 또한 19aα절(B')과 19b-20aα절(B)은 서로 짝을 이루는 일련의 행위들로 야훼와 예레미야, 예레미야와 유다의 관계를 대비시키고 있다.

19a α 절: 돌아오다-돌아오게 하다-앞에 서다

19b-20a α 절: 돌아오다-돌아가지 말라-맞서 세우다

이것은 동시에 20aα절이 19b절과 함께 의미 단락을 구성하고 있음을 뜻한다.

I과 II의 이같은 구조적 내용적 연관에도 불구하고 양자는 구별되는 점이 있다. I은 간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신의 행위를 말한다며, II는 자신의 행위를 밝힘으로써 자신의 고통스러운 처지를 더 뚜렷하게 부각시키고 야훼에 대한 실망이 괜한 것이 아님을 강변한다. 더 나아가 야훼의 약속이 조건적(□□)이라는 점도 구별된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확언(□□)으로 이해된 11절과

44) A. R. Diamond, *The Confessions of Jeremiah in Context. Scenes of Prophetic Drama*, 68-69도 전체적으로 이와 비슷한 구조를 제시한다.

45) 12-14절에 대해서는 위의 각주 29 참조.

대비되며 현재 그의 좌절상태를 전제한다. 그리고 그 약속은 탄식 내용이 아니라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렇게 탄식하도록 만든 그의 내적 상태 곧 야훼에 대한 실망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그 약속은 실망의 원인을 제거하는 데 있지 않다는 점에서 예레미야의 간구에 상응하는 응답이 아니다. 그것은 야훼의 개입을 말하지 않고 단지 과거와 같은 야훼와 그의 관계로 돌아가도록 반성을 촉구할 뿐이다. 따라서 응답은 형식상의 응답이며 오히려 그의 간구에 대한 실질적인 거부라고 할 수 있다. I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을까?

예레미야의 보복 간구는⁴⁶⁾ 그가 선포한 심판의 지연과 그에 대한 이스라엘의 적대적 반응을 전제로 한다(렘 17:5 참조). 이에 대해 야훼는 그들이 돌아올 것을 말한다. 그러나 그것이 회개가 아님은 그 다음에 계속되는 야훼의 말에서 짐작할 수 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금지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맞서도록 하리라는 것이 보복 간구에 대한 야훼의 답변이다. 10절에서 예레미야는 온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하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 탄식한다. 그런데 야훼의 그와 같은 답변은 그의 그러한 삶의 과정이 변함없이 계속되어야 함을 뜻한다. 예레미야가 맞서야 하는 그의 민족은 여전히 그에게 싸움을 걸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야훼의 동행과 도움 및 구원 약속도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가 소명 받을 때 야훼가 그에게 약속한 것과 다르지 않다(렘 1:7-8). 이렇듯 I과 II는 처음 관계의 복원을 지향한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예레미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모습은 ‘접근조차 하기 어려운’ 요새처럼 강한 자의 모습이 아니다. 자신의 간구를 실질적으로 거부당한 예레미야는 오직 야훼가 그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만 의지하고 다시 그의 길을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서있다. 예전처럼(17절) 그는 홀로여야 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그들에게 돌아가 그들과 연합해서는 안 된다.⁴⁷⁾ 20절에서 ‘그들’은 그의 ‘민족’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이것이 문헌비평의 이유는 되지 않는다.⁴⁸⁾ 야훼가

46) G. Fischer, *Jeremia 1-25*, 507은 예레미야의 보복 또는 보상 간구를 그를 위해 정의를 세우는 것, 다시 말해 적극적인 복수의 의미가 아니라 그의 권리를 세워주는 것이란 의미로 이해한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박해를 당한다면, 그것은 그가 위탁받은 심판 예언의 실현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권리를 세워주는 것이 그 심판의 실현을 내용으로 한다면, 그의 보복 요구는 사적이거나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이를 포함하는 전체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W. H. Schmidt, “Jeremias Konfessionen”, *JBTh* 16 (2001), 3-24, 특히 12-15와 각주 64 참조). 그러나 ‘박해하는 자들에게’라는 말은 보복 실현의 방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야훼에게 맡겨져 있다. 그렇다면 그 말은 그 요구의 사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47) J. Kiss, “Die dritte Konfession Jeremias”, 52-53 참조.

예레미야에게 위탁한 예언이 그를 둘러싼 일부 사람들만 겨냥한 것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이 백성’으로 다시 표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לְחֹמֹת נְהִישֵׁת בְּצוּרָה에서 לְעַם הַזֶּה לְחֹמֹת נְהִישֵׁת בְּצוּרָה를 예레미야와 연관짓는 것은 무리다. 따라서 생각해볼 수 있는 남은 다른 문법적 가능성은 그것이 הַזֶּה לְעַם를 부연 설명하는 동격이라고 보는 것뿐이다. 그렇게 읽는 것은 단지 문법적 해결책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문맥에도 잘 부합한다. 그 어구는 왜 야훼가 예레미야에게 응답하면서 그에게 돌아오는 이스라엘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지, 왜 야훼가 예레미야를 그들에게 맞서 세우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준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예레미야가 ‘이 백성’과 맞서며 오직 야훼의 동행 약속에만 의지해야 하는 이유를 밝혀주기도 한다. 오직 야훼와의 연합을 위해서다. 따라서 그 어구를 예레미야와 관련지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차적 확대의 일부인 12절이 예레미야의 적을 ‘철’이라고 했다면, 이는 또한 위에서처럼 읽은 20절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어구를 그렇게 읽으려는 시도는 지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레미야 15:20과 1:18은 그 방향이 어떻든 간에 서로 의존관계에 있음이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 왔다.⁴⁹⁾ 이는 예레미야 15:20을 위와 같이 읽어야 한다면, 예레미야 1:18도 그렇게 읽어야 함을 의미할 것이다.

4. 예레미야 1:14-19

13절의 ‘남쪽으로 기울어진 끓는 물솥’ 환상에 이어지는 14-19절은 14-16절의 환상 해설과 17-19절의 예레미야 파견으로 나뉘지고,⁵⁰⁾ 전자는 현재 후자의 배경 역할을 한다. 14-16절 본문은 다음과 같이 옮겨진다.

48) F. D. Hubmann, *Untersuchungen zu der Konfessionen*, 204, 291-293 참조. 문헌비평적 판단의 근거는 아마도 이 본문을 ‘이 백성을 위해 ...으로 세웠다’로 이해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심판의 문맥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는 J.-P. Sternberger, “Un oracle royale à la source d’un ajout rédactionnel aux ‘confessions’ de Jérémie: hypothèses se rapportant aux ‘confessions’ de Jérémie XII et XV”, *VT* 36 (1986), 462-473, 특히 469-471과 S. Hermann, *Jeremia*, 84와 아래 각주 57도 참조.

49) H.-J. Hermisson, “Jeremias dritte Konfession” 15와 각주 45. 렘 1:18이 렘 15:20에 의존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A. R. Diamond, *The Confessions of Jeremiah in Context*, 69-72 참조.

50) 16절의 w^e-AK 형식은 15절의 hinnî-분사형 + w^e-AK(2회)에 이어지며 다시 야훼의 행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17절보다는 15절과 함께 단락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예레미야 1:14-16 사역

- 14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북방으로부터 재앙이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밀려오리라**.
- 15 자, 내가 북방 나라들의 모든 **민족들을**⁵¹⁾ **부르면**⁵²⁾ -야훼의 말이다-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들 **앞에** 또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향해**⁵³⁾ 각각 자리 잡으리라.
- 16 (그때) 나는 그들의 모든 죄악에 대해 그들에게 내 판결을 선고하리라.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한 것(에 대해 그리하리라.)

14-16절은 13절 환상의 내용을 밝히는 14절과 그것을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여 신학화하는 15-16절로 나뉘진다.⁵⁴⁾ 16절의 ‘그들’은 지시 대상이 모호해 보이지만 14-15절은 ‘그들’을 ‘이 땅의 모든 주민들’ 곧 유다 사람들로 읽게 한다. 그러면 15-16절의 행위 연쇄 ‘(야훼:) 부르다-(북방 민족:) 오다-자리잡다-(야훼:) 선고하다’는 야훼가 소집한 군대들이 유다로 진군하여 성읍들을 포위하고 야훼가 최고사령관으로서 유다에게 최후 통첩하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렘 2:9; 21:5,13; 34:17; 50:31도 참조). 유다와 예루살렘 멸망의 근본적 동기는 국제 정치적 역학관계가 아니라 삼중으로 그것도 점층법적으로 표현된 야훼와의 관계 훼손에 있음을 16b절은 분명하게 말한다.⁵⁵⁾ 이것이 북방으로부터 밀려오는 재앙의 실체인 셈이다. 16절의 ‘죄악’과 14절의 ‘재앙’이 모두 **קָטָה**로 표기된다는 것은 그들의 재앙이 그들의 죄에 상응함을 암시하는 일종의 문학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⁵⁶⁾

이러한 상황을 전제하고 야훼는 17-19절에서 예레미야에게 과제를 부여한다.⁵⁷⁾ 17절 첫머리의 **וְאָמַר** 형식은 특히 16절의 **וְאָמַר**-절에서 고발당하는 ‘그

51) 북방 민족에 대해서는 렘 4:6, 13-18; 5:15-18; 6:22-23 참조 (또한 사 5:26-28도 참조).

52) 15절은 북방으로부터 밀려오는 재앙 전 과정을 말하기 때문에 **וְאָמַר**을 이유로 읽는 것은 적절치 않다.

53) 그 다음에 한글 성서들처럼 동사를 보충하는 것은 16절을 분리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54) R. Brandscheidt, “‘Bestellt über Völker und Königreiche’ (Jer 1,10). Form und Tradition in Jeremiah 1”, *TThZ* 104 (1995), 12-37, 17-18은 렘 1:4-19의 기본 층을 분석하며 위와 동일한 입장을 보인다. 그는 또한 15-16절이 정치적 사건의 신학적 측면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한다(32).

55) 그 가운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한다’는 것은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행위다.

56) G. Fischer, *Jeremia 1-25*, 140.

들'의 반(反)야훼적 행위들과 대비해서 읽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⁵⁸⁾ ‘허리 띠를 동여매다’(תָּאָזַר מְתִנָּיִת)라는 것이 ‘싸울 준비하다’를 상징하기 때문에⁵⁹⁾ תָּאָזַר도 그와 상응하게 ‘맞서 일어나라’로 새겨질 수 있다.⁶⁰⁾ 야훼가 자신을 버린 이스라엘의 성읍을 향해 심판자로서 있는 것처럼 그는 예레미야도 그의 사자로서 그들에게 맞설 것을 요구한다. 예레미야는 성읍에 맞서 성읍을 향해 성읍 안의 주민들에게 대항해야 한다. 이 점에서 14-16절과 17-19절은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해 성읍은 야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와도 맞서 있는 세력의 상징이다. 더욱이 견고한 성읍들은 유다가 의지하는 것으로 비판의 대상이다(렘 5:17). 그런데도 18a절이 예레미야를 성읍에 비유한다고 이해하면,⁶¹⁾ 그것은 매우 어색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문맥과도 어긋나는 일이다. 이

57) R. Brandscheidt, “‘Bestellt über Völker und Königreiche’ (Jer 1,10)”, 14-17은 18절을 10절과 함께 포로기 이후의 첨가로 보고 기본 층에서 제외한다. 그는 18a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견해를 수용하지만 그 이하의 5-전치사 어구에 대해서는 ‘...을 위해’로 달리 해석하고, 예레미야는 본래 유다 왕 등에 의해 보호 성벽으로 간주되었을 가능성을 말한다(15). 그러나 그들은 무적의 예레미야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좌절을 겪게 되는 반면 경건한 자들에게 그러한 예레미야는 믿음의 실존의 별레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계약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바로 여기서 그 비유의 두 가지 기능을 찾는다(34-37). 그러나 야훼가 유다를 향해 심판을 선언하는 맥락에서 18b절의 전치사 5를 예컨대 유다를 ‘위해’로 옹골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위 각주 48도 참조.

58) J.R. Lundbom, “Rhetorical structures in Jeremiah 1”, *ZAW* 103 (1991), 193-210, 204-205는 이를 야훼의 ‘나’와 대비시킨다. 이는 형식만 놓고 본다면 가능한 일이지만, 야훼가 그와 다른 어떤 것을 예레미야에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야훼와 예레미야는 대립적일 수 없고 따라서 내용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15절과 관련해서 말해야 한다면 תָּאָזַר는 차라리 ‘그러니 너는’으로 옹골하는 편이 더 나올 것이다.

59) 이에 대해서는 K. Low, “Implications Surrounding Girding the Loins in Light of Gender, Body and Power”, *JSOT* 36:1 (2011), 3-30, 5-7, 18-19 참조. 그는 이를 그가 앞으로 겪을 내적 갈등과 밖으로는 야훼와 그의 백성들 사이의 갈등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그것은 14-19절의 직접적인 문맥을 넘어서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60)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HALOT*, 1087 참조.

61) 이 비유의 일반적인 이해에 대해서는 특히 W. McKane, a.o., *Jeremiah*, 22 참조. 거기서 ‘견고한 성읍...’은 예레미야가 갖춘 일종의 전투장비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것들은 그가 자기 직무에 순종함으로써 그 사실을 깨닫기만 한다면 자신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이집트 문헌들에서 ‘눅성벽’은 신과 파라오의 보호를 나타낸다는 A. Alt를 인용하여 렘 1:18의 ‘눅성벽’이 어떻게 다른지 언급하기도 한다(이에 대해서는 S. Hermann, *Jeremia*, 81-83 참조). 개인의 자기 방어에 방점이 주어지는 렘 1:18에서 그 비유는 힘과 결단(determination)에 있어서 적들과 대등하고 또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가 야훼의 동행과 도움 그리고 구원 약속에 의지해야 함을 주장하는 렘 1:17-19를 정당하게 평가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J. H. Smit, “War-related Terminology and Imagery in Jeremiah 15:10-21”, *OTE* 11:1 (1998), 105-114, 109-110은 동일한 이집트 문헌에 근거하여 야훼의 지지와 보호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 비유를 이해한다. 그러나 ‘너를 견고한 성벽...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본문을 새긴다면, 이것은 그러한 이해를 뒷받침하지 않을

러한 난점을 피하려면 견고한 성읍 비유가 18b절의 유다 왕 등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양자를 일종의 동격으로 간주하는 것은 비문법적인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문법적 가능성 안에서 문맥과 일치하는 독법이다. 17b절과 19절이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도 17a절과 18절의 동일한 관계를 기대하게 한다. 이것도 18a절이 예레미야를 위한 보호장치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지배층에 맞서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보는 것을 지지할 것이다. 그의 안전에 대한 보장은 그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장치로 19절에서 비로소 다루어진다. 따라서 1:18과 15:20의 관련 어구는 어순이 서로 반대지만 문법적 관계는 동일하다.

이로부터 17절과 18-19절은 다음과 같이 내용면에서 평행법에 가까운 구조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 17 a 그러나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맞서’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라!
 b 그들과 **대면하는 것**을⁶²⁾ 두려워하지 말라.
 c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리라⁶³⁾
 18 a' 그러나 나는 오늘 너를 요새화된 성읍과 철기둥과 놋성벽,

것이다. 예레미야 자신이 그러한 자로 묘사된다면, 그는 이미 그러한 자기 보호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G. Fischer, *Jeremia 1-25*, 141-142는 예레미야가 586년에 파괴된 예루살렘과 그 성전보다 더 나은 대체물로 제시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J. Vermeylen, “La redaction de Jérémie 1,14-19”, *ETL* 58 (1982), 252-278, 262-263, 276-277는 이를 위해 후대의 경건한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한다. J. Krispenz, “Die Einsetzung Jdes eremia-Ambivalenz als Mittel der Sinnkonstitution”, F. Hartenstein, J. Krispenz und A. Schart, (Hgg.), *Schriftprophetie*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4), 203-219, 특히 218은 그 비유가 하나님 백성의 이상적 대표자를 그리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편집사적 해결 시도 역시 본문의 해석과 깊은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R. Brandscheidt, “Bestellt über Völker und Königreiche”(Jer 1,10)”, 36은 예레미야에게서 성전과 관련된 구원기대가 인격화된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비유들로 이해되던 유다 지배층이 유다멸망과 함께 몰락하는 것을 예레미야서는 처음부터 보고 있었다고 말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그것도 야훼의 주도적 개입으로 그렇게 될 것을 암시한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 62) אֶל-פְּנֵיהֶם אֲמַרְתָּ는 단순히 ‘그들을 두려워 말라’로 번역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들의 얼굴’이라는 말에서 ‘그들과 대면하는 것’을 읽어낼 수 있다고 본다.
 63) 개역개정은 이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로 옮기는데, 이처럼 위협을 약속으로 옮긴 이유를 알 수 없다. 칠십인역의 μηδὲ πτοηθῆς ἐναντίον αὐτῶν은 금지 명령으로서 ‘그들 앞에서 두려워 말라’로 옮겨진다. 칠십인역이 그 번역대본을 충실하게 번역했다면, 그 대본은 MT와 같은 본문이 줄 수 있는 신학적 충격을 피하기 위해 본문을 변경했다고 할 수 있다. 그 반대의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다. 개역개정도 그러한 경우인지?

(곧) 유다 왕과 그 고관들, 그 제사장들과 땅의 백성들에게 맞서
온 땅 위에 세운다.

19 b' 그들이 네게 싸움을 걸어도 너를 이길 수 없다.

c' 내가 너와 함께 하며 -야훼의 말이다- 너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8절 첫머리의 **וַיִּבֶן**는 관련 문맥이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구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단락은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17절이 16절의 **וַיִּבֶן**-절을 전제하고 동일한 형식을 사용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17절 끝의 **וַיִּבֶן**-절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주어는 동일하지만 의도된 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형식의 사용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낱말이 바로 ‘오늘’이다.⁶⁴⁾ 시간적으로는 18절의 사건이 17b절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장애로 보였던 것들이 제거된다면, 17-19절은 일관된 단락으로 읽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14-16절이 야훼가 성 밖에서 북방 민족들과 함께 유다 성읍을 향해 심판을 선언한다면, 예레미야는 성읍 안에서 홀로 그 성읍을 향해 야훼의 명령을 고지해야 한다. 적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홀로’ 있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을 신뢰하는 그를 이길 수 없다. 예레미야서는 그 반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의 현실을 계속해서 보도한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멸망에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예언의 실현을 경험한 후대의 예레미야서 편집자들은 강자들이 지배하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이 본문을 통해 말하고자 했을 것이다(렘 2:37; 46:25 참조).

5. 나가는 말

해석 전통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예레미야 1:18과 15:20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성서 해석의 정당성을 반드시 보증해주지는 않는다.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 비유는 문법적으로든 구조적으로든 내용적으로든

64) R. Brandscheidt, “Bestellt über Völker und Königreiche”, 14.36은 이를 예식적 “오늘”로 읽을 것을 말하지만, 이것은 독자가 ‘오늘’을 자기 편에서 ‘오늘’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을 본문에 투사한 독법으로 본문 상황 속에서의 ‘오늘’과 구별되어야 한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렘 1:18)의 번역 문제 / 김상기 63

예레미야가 아니라 ‘유다의 왕들 ... 땅의 백성’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오히려 그러한 말들로 비유되는 완강한 세력과 홀로 맞서게 된다. 두려운 일이지만, 두려워할 수도 없다. 그에게 있는 것은 그와 함께하리라는 야훼의 약속뿐이다. 야훼에 대한 원망과 야훼로 인한 좌절을 넘어 야훼를 의지했던 예레미야처럼 군사력이나 경제력, 외세나 다른 신들 등이 아니라 그러한 야훼를 의지하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레미야서 편집자들의 의도이다. 다음과 같은 예레미야 1:18은 이와 일치할 것이다.

나는 오늘 너를 요새화된 성읍과 철기둥과 놋성벽,
곧 유다 왕과 그 고관들, 그 제사장들과 땅의 백성들에게 맞서
온 땅 위에 세운다 (렘 1:18).

이러한 이해는 예레미야 1장에 대한 편집사적 이해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주요어>(Keywords)

견고한 성읍, 놋성벽, 쇠기둥, 예레미야 1장, 비유, 구조와 번역.

fortified city, walls of bronze, a pillar of iron, Jeremiah 1, metaphor, Structure and Translation.

(투고 일자: 2012. 2. 1, 심사 일자: 2012. 2. 24, 게재 확정 일자: 2012. 2. 24)

<참고문헌>(References)

- 박동현, 『예레미야 1』,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Brandscheidt, R., “‘Bestellt über Völker und Königreiche’ (Jer 1,10). Form und Tradition in Jeremiah 1”, *TThZ* 104 (1995), 12-37.
- Brueggemann, W., *A commentary on Jeremiah. Exile and Homecoming*, Grand Rapids: Eerdmans Pub. Com, 1998.
- Carroll, R. P., *Jeremiah. A Commentary*, London: SCM Press, 1986.
- Craigie, P., Kelly, P. H. and Drinkard Jr. J. F., *Jeremiah 1-25*, WBC 26, Dallas: Word Books Publisher, 1991, 『예레미야 1-25』, 권태영 옮김, 서울: 솔로몬출판사, 2003.
- Diamond, A. R. P., “Jeremiah's confessions in the LXX and MT: A Witness to Developing Canonical Function?”, *VT* 60 (1990), 33-50.
- Diamond, A. R. P., *The Confessions of Jeremiah in Context. Scenes of Prophetic Drama*, JSOTsupp. 45,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7.
- Fischer, G., *Jeremia 1-25*, HThKAT, Freiburg u.a.: Herder, 2005.
- Fischer, G., “Ich mach dich ... zur eisernen Säule (Jer 1:18)”, *ZKTh* 116 (1994), 447-450.
- Gesenius, W and Kautzch, E., *Hebraische Grammatik*, Hildesheim: Georg Olms Verlagsbuchhandlung, 1962.
- Gosse, B., “The Masoretic Redaction of Jeremiah: An Explanation”, *JSOT* 77 (1998), 75-80.
- Herrmann, S., *Jeremia*, BK 12:1-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0-1991.
- Hermission, H. -J., “Jeremias dritte Konfession”, *ZThK* 96 (1999), 1-28.
- Holladay, W. L., *Jeremiah I. A Commentary on the Book of the Prophet Jeremiah Chapters 1-25*,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6.
- Hubmann, F. D., *Untersuchungen zu der Konfessionen Jer 11,18-12,6 und Jer 15:10-21*, FzB 30, Würzburg: Echter Verlag, 1978.
- Jenni, E., *Die hebräischen Präpositionen, Bd. 3. Die Präposition Lamed*, Stuttgart [u.a.]: Kohlhammer, 2000.
- Jouion, P. and Muraoka, T.,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Roma: Gregorian & Biblical Press, 2. ed. 2009.
- Jüngling, H. -W., “Ich mache dich zu einer ehernen Mauer. Literarkritische Überlegungen zum Verhältnis von Jer 1,18-19 zu Jer 15,20-21”, *Bibl* 54 (1973), 1-24.
- Kiss, J., “Die dritte Konfession Jeremias (Jer 15:10-21)”, Klein, H., Köber, B. W.

und E. Schlarb, (Hgg.), *Kirche - Geschichte - Glaube. Freundesgabe für Hermann Pitters zum 65. Geburtstag*, Erlangen: Martin-Luther-Verl. 1998, 42-53.

Low, K., “Implications Surrounding Girding the Loins in Light of Gender, Body and Power”, *JSOT* 36:1 (2011), 3-30.

Lundbom, J. C., *Jeremiah 1-20.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NY et al.: Doubleday, 1999.

Diamond, A. R. P., “Rhetorical structures in Jeremiah 1”, *ZAW* 103 (1991), 193-210.

Martínez, F. G. and Tigchelaar, E. J. C., (eds.), *The Dead Sea Scrolls*, vol. 1, Leiden et al.: Brill 1997.

McKane W. and Emerton, J. A. and Cranfield, C. E. B.,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Jeremiah*, vol. 1, Edinburgh: T & T Clark and New York, 1986.

Min, Y. -J., *The Minuses and Pluses of the LXX Translation of Jeremiah as Compared with Masoretic Text: Their Classification and Possible Origins*, Hebrew Univ. of Jerusalem, 1977 (박사학위 논문).

Schmidt, W. H., *Das Buch Jeremia 1-20*, ATD 20,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8.

Diamond, A. R. P., “Jeremias Konfessionen”, *JBTh* 16 (2001), 3-24.

Schreiner, J., *Jeremia 1-25,14*, Würzburg: Echter Verlag, 1981; 1985.

Smit, J. H., “War-related terminology and imagery in Jeremiah 15:10-21”, *OTE* 11:1 (1998). 105-114.

Soderlund, S., *The greek text of Jeremiah. A Revised Hypothesis*, JSOTSup 47, Sheffield: Sheffield Press, 1985.

Sternberger, J. -P., “Un oracle royale à la source d'un ajout rédactionnel aux ‘confessions’ de Jérémie: hpothèses se rapportant aux ‘confessions’ de Jérémie XII et XV”, *VT* 36 (1986), 462-473.

Thompson, J. A., *The Book of Jeremiah*,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80.

Tov, E., “Some aspects of the Textual and Literary History of the Book of Jeremiah”, P. -M. Bogaert, (ed), *Le livre de Jérémie. Le prophète et son milieu. Les oracles et leur transmission*, BRTThL 54, Leuven: Leuven Uni. Press, 1981, 146-167.

Diamond, A. R. P., “The Literary History of the Book of Jeremiah in Light of its Textual History”, *The Greek and Hebrew Bible. Collected essays on the Septuagint*, Leiden et al.: Brill, 1999, 363-384.

Vermeylen, J., “La redaction de Jérémie 1,14-19”, *ETL* 58 (1982), 252-278.

<Abstract>

A New Translation of Jeremiah 1:18

Dr. Sang-kee Kim
(Jeonju University)

Here is dealt with the question, whether the metaphor in Jeremiah 1:18 can be otherwise comprehended. That is unexceptionally associated with the prophet Jeremiah himself regardless of how the preposition lamed belonging to it is interpreted. But this leads, in my estimation, to a discrepancy between Jeremiah's images: strong and invincible one and feeble and dependent one (v. 19). Jeremiah as the former is considered to be able to supercede the broken city Jerusalem and her temple, whereas he as the latter must rely on God's only promise to be with and save him.

When this discordance is caused by connecting the metaphor in question with the prophet Jeremiah, another possibility can be found in defining it as apposition to the subsequently referred ruling classes of the kingdom of Judah. This can be backed up by semantic, intertextual and structural investigation of Jeremiah 1:13-19 and its relating other texts. Then Jeremiah 1:18 is to be translated as follows:

“Now behold, I have set you today
against a fortified city and against a pillar of iron and against walls of bronze
upon the whole land, (that is,
against the kings of Judah, against its princes, against its priests and against
the people of the land.”